

# 탈냉전 이후 서부유럽의 군수산업 위기와 지역적 대응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문 남 철\*

## The End of Cold War and a Crisis of the Munitions Industrial Region in the West-Europe

Nam-Cheol Moon\*

**요약** :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군수산업의 동향과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 그리고 군수산업과 지역적 위기에 대한 군수산업기업과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대응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냉전종식과 긴장완화 추세, 유럽연합 형성과 유럽독자방위체제 창설논의 등 군사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의 감소, 군수장비 수출의 급격한 감소, 군병력의 축소와 군수산업 고용자 해고의 증가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유럽의 군수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기에 직면한 군수산업기업들은 내적 다변화, 외적 성장, 민간부문으로 산업전환 등 매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군수산업의 위기는 군수산업에 대해 경제적·사회적 강한 의존성을 보인 군수산업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였고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산업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주요어** : 냉전종식, 군수산업지역, 다변화, 산업전환, 유럽연합.

**Abstract** : The end of cold war and the trend of the detente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the military security policy and in the munitions industry of the West-Europe : reduction of the defence budget, diminution of the military power force and armaments, decrease of the exportation and the domestic demand of ordnance, and augmentation of discharged laborers. This mutation caused the munitions industry and the war industrials regions to a crisis. The munition industrials enterprises which was confronted a crisis searched for diverse strategies like an reconversion to the civil products, an internal diversification and an external growth. And the European Unio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or regional self-government implemented policies for diversification of regional economic with an reconversion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regional economic and society from the crisis of the munition industry.

**Key words** : end of cold war, munitions industrial region, diversification, reconversion, European Union

### 1.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재래식무기감축협정<sup>1)</sup>, 구 소련과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정치·경제개혁,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의 해체, 유럽통합 추진 등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유럽 지역의 군사안보지도를 크게 바꾸게 하였다. 동·서 23개국 정상회담<sup>2)</sup>에서 합의된 재래식무기감축협정과 동부유럽 공산주의 통치체제의 붕괴는 동·서 진영간 정치적·이념적 대립을 종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결양상도 종결시켰다. 또한 탈냉전과 유럽통합의 추진에 따라 기존의 국가별 국가방위 개념과 개별 국가군사력의 존재이유는 희박해지고 초국가적인 분쟁에 대응한 집단적 방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독자방위체제의 창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sup>3)</sup>.

냉전종식 이후의 긴장완화 추세, 유럽연합 출범 이후 유럽독자방위체제 창설논의 등 군사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유럽 국가들은 국방예산을 감축하였다. 유럽연합 위원회에 의하면(Commission européenne, 1994) 1987년 이후 유럽연합의 연평균 국방비 지출은 감소되어 왔으며 2000년에

\*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won University) (mnc83@hanmail.net)

는 1991년에 비해 25% 이상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방예산 감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병력규모 축소, 무기 및 장비구매 감소 등 모든 형태의 군비지출에 영향을 주게된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수산업의 중심지로 모든 회원국들은 상당한 규모의 군수장비 수입국인 동시에 수출국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은 세계 군수장비 수출국 중 3, 4,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군수산업의 강대국들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수출 대상국이 주로 서부유럽의 선진국가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Hébert, 1997)은 유럽국가들의 군수산업이 군비축소로 인한 군수장비의 수출감소와 내수구매의 감소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군수산업의 위기는 직접적으로 관련산업 고용인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것은 군수산업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유럽연합 위원회는(Commission européenne, 1994) 1992년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군과 관련된 직접 종사자의 수는 약 2백 30만 명, 군수산업과 관련된 직접 고용자의 수는 약 7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즉 유럽연합 전체 노동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이들 3백만 명은 국방비 지출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수산업에 관련된 직접 고용인에 제품 구매와 서비스, 에너지, 원료, 운송, 기계 등 이 활동과 관련된 간접고용인을 더하면 총 1억 6천만 명에 이르며 이들도 군비지출의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의 감소는 군사활동과 직접 관계된 군 종사자와 군수산업 고용자의 감축을 의미하며 동시에 관련된 군수산업의 위기와 지역적 위기를 야기하게 된다.

군비축소에 따른 군수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수산업기업은 새로운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군수산업에 대해 경제적·사회적 강한 의존성을 지닌 군수산업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정책이 유럽연합, 국가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히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탈냉전의 도래로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냉전종식 이후 서부유럽국가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군수산

업동향과 이로 인한 지역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군수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산업기업들의 생존전략과 군수산업 침체에 따른 군수산업지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연합, 국가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 정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자료는 탈냉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나타난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통계자료와 문헌 등을 기본자료로 이용하였다. 서부유럽, 특히 유럽연합 지역 및 각 국가들의 군수산업동향과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 유럽연합의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행한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부유럽 지역 및 각 국가들의 군수산업동향과 지역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기존 보고서나 연구논문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을 조사, 분석한 연구로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descrip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주로 서부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부유럽 국가들의 군수산업 동향과 지역적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유럽지역에서 냉전 종식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를 주요 분석시기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유럽의 군수산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지역경제구조의 다변화 정책의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 2. 서부유럽의 군수산업 동향

### 1) 1980~1988년 : 냉전시기

198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전세계 군비지출은 미국과 구 소련간의 힘의 논리와 블록 정치의 논리, 남에 대한 북의 지배 논리에 따라 크

게 증가하였다<sup>4)</sup>. 또한 주요 강대국들은 군수산업을 그들의 산업과 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핵심적 도구로 간주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써 왔으며 이러한 군사적 지향은 강력한 군수산업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1991년 군수산업에 고용된 인원은 미국 약 1백 20만 명, 유럽공동체(EC) 약 70만 명,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약 4만 명, 일본 약 7만 8천 명, 구 소련 약 3~4백만 명, 구 바르샤바조약 기구(WTO) 약 2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Adam, et al., 1994).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군사력 강화 전략은 구 소련,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패권국가들의 경제, 산업, 기술 그리고 재정적 기반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어왔다.

**2) 1989~1993년 : 군비축소의 시기**

(1) 서부유럽의 변화

1980년대 후반 이후 서부유럽에서는 군비 지출의 감축, 군수장비 수출의 급격한 감소, 군수산업 고용자 해고의 증가, 군 병력의 감소<sup>5)</sup> 등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1989년부터 1992년 사이 서부유럽에서는 군비지출(4.6%)과 군수장비구매(6.4%)의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군수장비 수출도

1990년 35%, 1991년 25%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감축은 시기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989~1991년 시기에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군비축소의 망설임과 그에 따른 지연으로 감축이 비교적 적게 이루어졌으나, 1991~1992년에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국방예산의 감축이 이루어졌다(Adam, et al., 1994). 그리고 국가간에도 에스파냐(19%), 그리스(25%), 이탈리아(6.2%), 스웨덴(13%)은 많은 국방비지출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에 기타 다른 국가들은 적은 감소를 보였고, 덴마크(14.3%), 포르투갈(7.6%), 노르웨이(0.2%)는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오히려 예산을 증대하였다. 그리고 프랑스(-1.5%)와 영국(0.5%)은 군사력을 유지할 위해 국방예산 감축을 주저하였다. 어쨌든 서부유럽국가들의 군비축소 계획은 정치적·경제적 저항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히 지연되었다.

그러나 보다 실제적인 변화는 각 국가의 군수장비 구매와 군비지출에서 군수장비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루어졌다. 1989~1992년 사이 주요 서구 강대국의 군수장비 구매는 11.4% 감소했으며, 전체 군비지출에서 장비 구매 비중 역시 1989년

표 1. 서구강대국의 국방비 지출감소와 군수장비 구매(1989년~1992년)

국가	군비지출 감소(%)	군수장비 구매감소(%)	장비구매/군비지출 (92년, %)	국가	군비지출 감소(%)	군수장비 구매감소 (%)	장비구매/군비지출 (92년, %)
그리스	25	8.6	28.3	노르웨이	+0.2	14	34.7
네덜란드	6	6	25	오스트리아	7.7	18.6	24
덴마크	+14.3	+4.7	30.8	스웨덴	13	+0.3	40
독일	9	17	34.2	스위스	6.5	10	49.5
벨기에	10	42.6	19.4	핀란드	3.3	+3.5	46
스페인	19	28	36.2	EFTA 전체	7.2	6.4	40.2
아일랜드	8.8	n	n	전체 서부유럽	4.6	12.2	36.1
영국	+0.5	10	38	미국	9.8	13	49.4
이탈리아	6.2	26.2	24.7	캐나다	2.9	+4.3	34
스페인	19	28	36.2	일본	+8.8	+9.7	42
포르투갈	+7.8	33	13.8	전체	6.9	11.4	44.2
프랑스	1.5	3.8	47				
EC 전체	4.2	13	35.7				

자료 : GRIP 연구 보고서, 1994.

46.39%에서 1992년 44.16%로 축소되었다.

서부유럽에서도 군비 지출에서 장비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각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유럽공동체는 1989년 39%에서 1992년 35.7%로 높은 감소를 보였다. 반면에 다른 지역 및 강대국들은 국방예산에서 장비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즉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1989년 39.8%에서 1992년 40.23%, 미국은 51.2%에서 49.44%, 일본은 41.6%에서 41.9% 그리고 캐나다는 32.2%에서 34.13%로 각각 변화하였다. 어쨌든 1992년까지 장비구매는 군비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sup>6)</sup>.

(2) 서부유럽의 주요국가별 변화

서부유럽 주요국가들의 군비축소 노력은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를 보였다. 영국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Options for Change'를 통한 제1차 군 구조 개편 이후 'Front Line First'에 입각한 제2차 군 구조 개편작업을 지속 중에 있다. 'Front Line First'<sup>7)</sup>는 군사력 재편을 통해 국방비 삭감을 주목표로 병력규모 축소 및 통폐합을 통해 확보되는 절감예산으로 첨단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93년 전체 국방예산은 국민총생산액의 4.1%로 1939~1945년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었다. 이러한 군비축소의 결과로 1993년부터 1995년 사이 약 20만 명의 직·간접 군수산업 고용자가 감축되었다(엄태암 외, 2000).

독일은 탈냉전 신 국제질서의 도래로 인한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적용하고, 통일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으로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 병력과 군수장비구매가 축소되었다. 1990년 10월 통일 직후 66만 8천명에 달하던 독일군(서독 49만 5천명, 동독 17만 3천명) 병력은 1995년 말까지 5년 간 단계적으로 총병력의 약 50%가 감축되었으며<sup>8)</sup>(엄태암 외, 2000), 정부의 군수장비 구매도 1993~1998년 사이 50% 이상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로 1980년대 초반 군수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독일의 거대 군수산

업 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군비감축에 있어 예외성을 보였다. 프랑스는 핵무기에 중점을 둔 프랑스 정부의 군사적 전략에 따라 1989년~1993년 기간동안 서부유럽 국가 중 가장 명백하게 군사적 지향을 유지한 국가였다<sup>9)</sup>.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의 긴장완화 추세와 군비축소, 세계 주요국가와 국내산업의 강한 압력 따라 1993년 국방예산(3.4%)을 감축하였으며 1991년 7월부터 기존의 전 국토 방위체제를 단순화하여 국방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랑스군 2000년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엄태암 외, 2000). 이 계획에 의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육군병력의 20% 감축이 추진되었고, 군수산업의 민영화와 합병에 의한 군수산업 재편으로 전체 종사자 약 30만 명의 1/6에 해당하는 약 5만 명이 감축되었다.

그밖에 이탈리아, 에스파냐,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 재정 형편이 취약한 유럽국가들도 냉전종식 이후의 긴장완화와 군비축소의 추세에 따라 국방예산의 감축과 군대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3) 동부유럽의 변화

동부유럽지역의 통계상 군수산업 변화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 산업구조에서 군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부유럽국가들의 경우 군비 감축과 서구자본주의로의 전환 등으로 군수산업의 상당한 붕괴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GRIP 연구보고서에 의하면(Adam, et al., 1994) 1989년부터 1991년 사이 구 소련의 방위력은 60억 달러(28%), 구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의 방위력은 24억 3천만 달러(21%) 감소하였고, 기타 동부유럽의 경우 체코슬로바키아 35%, 헝가리 15%, 루마니아 13.5%, 폴란드와 불가리아 11%, 알바니아 33.7% 등 모든 동부유럽국가들의 방위력 역시 경제, 사회적 위기와 서구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략적 변화에 따라 크게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유고 내 긴장의 고조와 내전에 따른 군수장비의 증가, 독일, 이란 등 외부 강대국으로부터의 무기공급 등에 의해 1990~1991년 군사비 지출은 71%의 증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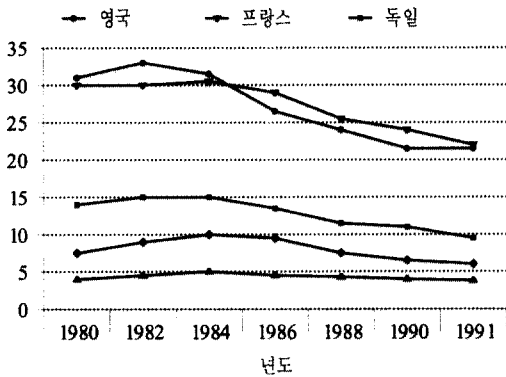
3. 군수산업의 위기와 지역적 영향

1) 군수산업의 고용 변화

19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서부유럽국가에서 군수산업과 관련된 직접 종사자는 국방비지출 증가와 군수장비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되어왔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서부유럽에서 가장 많은 고용자 수의 성장을 보였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도 고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83년 서부유럽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약 20만 명

주요 국가인 영국(33만), 프랑스(30만), 독일(24만), 이탈리아(10만)가 서부유럽의 총 고용자의 수와 총 수출의 약 3/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용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3~1991년 사이 유럽공동체 내 군수산업과 관련된 직접 고용자는 약1/3이 감소하였다. 규모에 있어,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국가는 당연히 서부유럽의 4개 주요국가로 영국(전체 손실의 35% 차지), 프랑스(손실의 22.5%), 독일(손실의



단위 : 천명  
자료 : GRIP 연구 보고서, 1994.

그림 1. 유럽공동체 군수산업 직접고용 변화

과 유럽공동체(EC) 약 1백만 명 등 총 1백5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인을 가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수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중 서부유럽의

표 2. 유럽공동체 군수산업의 직접고용 손실 (1980, 1983, 1991년) 단위 : 천명

국가	1980	1983	1991	1983/1991년 차이
네덜란드	38	30	19	-11/-36.5%
독일	140	155	95	-60/-39%
벨기에	27	28	11	-17/-61%
스페인	40	53	36	-17/-32%
영국	310	330	215	-115/-35%
이탈리아	73	100	64	-36/-36%
프랑스	300	305	230	-75/-25%
EC전체	928	1,001	670	-331/-33%

18%), 그리고 이탈리아(손실의 11%) 등이었다. 이들 주요국가가 유럽공동체 전체 고용자 손실의 86.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손실의 강도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는 벨기에(61%), 독일(39%),

표 3. 유럽국가의 군수산업 직접고용 손실(1992년~1995년) 단위 : 명

국가	고용손실	국가	고용손실	국가	고용손실	국가	고용손실
유럽공동체(EC)							
그리스	1,500	네덜란드	6,000	독일	30,000	덴마크	?
벨기에	5,000	스페인	15,000	영국	130,000	이탈리아	25,000
포르투갈	?	프랑스	100,000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	2,000	스웨덴	5,000	스위스	5,000	오스트리아	?
동부 유럽							
루마니아	?	몰도바	40,000	발트3국	120,000	벨로루시	100,000
불가리아	30,000	슬로바키아	50,000	알바니아	?	우크라이나	500,000
폴란드	150,000	헝가리	7,500	유럽러시아	1,000,000		

자료 : Caroué, 1997.

이탈리아와 네덜란드(36%)였다.

유럽연합 위원회에 의하면(Commission européenne, 1994) 1991년 현재 유럽공동체 내에서 군수산업과 관련된 직접 고용자는 약 67만 명으로 유럽공동체 전체 산업인구의 약 0.55%를 차지하며, 군수산업 종사자에 군과 관련된 종사자를 더하면 실제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사람은 3백만 이상으로 유럽공동체의 전체 산업인구의 약 2.4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군수산업활동과 관련을 지닌 간접고용인을 더하면 총 1억 6천만 명에 이른다.

1984~1991년에 나타난 고용자의 감소추세는 1992~1995년 기간 동안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서부유럽에서는 약 20만에서 30만 명(13~25%)의 고용자를 더 감축하였다. 이 기간에도 가장 많은 고용자 감축을 한 나라는 서부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었다. 영국 13만(60.5%), 프랑스 10만(43.5%), 독일 3만(31.6%), 이탈리아 2.5만명(39.1%) 등 커다란 고용인 감소를 나타냈으며 그밖에 스페인 1.5만(41.7%), 벨기에 5천명(45.4%) 등 많은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스웨덴 5천(1992~1994년 사이 총 고용자의 35% 감소), 스위스 5천, 노르웨이 2천명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들 역시 고용자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고용손실을 보인 지역은 동부 유럽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구 소련과의 기술적 상호의존과 협력관계 하에 군수생산시설의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동부유럽국가들의 서구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과 구 소련의 해체에 따라 군수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 러시아 100만, 우크라이나 50만, 폴란드 15만, 벨로루시 10만 등 군수산업분야에서 대규모의 고용감소가 발생하였다.

## 2) 군수산업 위기의 지역적 영향

### (1) 서부유럽의 지역적 영향

일반적으로 군수산업 위기에 영향을 받은 서부 유럽 지역(NUTS 1<sup>10</sup>)은 프랑스의 아키텐(Aquitaine), 영국의 북부(North), 스코틀랜드(Scotland) 등 십여 개의 지역에 해당된다. 즉 전통적인 군수산업지역(프랑스의 루아르(Loire), 툴르(Tulle), 타르브(Tarbes), 영국의 미들랜즈(Midlands), 스코틀랜드(Scotland), 북부(North), 독일의 라인란트(Rheinland) 등)과 국가 안보상의 중요성을 지닌 해안지역(프랑스의 로리앙(Lorient) 또는 세르부르(Cherbourg), 스페인의 카디스(Cadiz), 카르타헤나(Cartagena), 영국의 배로인 퍼니스(Barrow-in-Furness), 플리머스(Plymouth)와 포트마우스(Portsmouth))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구권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체계에 있어 서부유럽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독일(서독)은 서부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군사기지의 폐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트리어(Trier), 코블렌츠(Koblenz), 뤼네부르크(Lüneburg), 라인헤센 팔츠(Rhinehessen-Pfalz),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운터프랑켄(Unterfranken)과 기센(Giessen)의 지역경제는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유럽연합에 의해 아주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아울러 유럽연합 군인의 40%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 대 런던(Greater London), 뮌헨(München), 이탈리아 북부 등 거대 메트로폴리탄 지역 역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고용감소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1989년에서 1993년 사이 군수산업과 관련

표 4. 프랑스 군수산업의 직접고용 증감(수도권과 지방 비교)(1989년과 1993년) 단위: 천 명

구분	1989	1993	1989/1993 차이
수도권	93.4(35.7%)	91.5(36.8%)	-1.9(-2%)
지방	167.6(64.3%)	156.6(63.2%)	-11(-6.5%)
합계	261(100%)	248.1(100%)	-12.9(-5%)

자료: Hébert J. P., 1995.

된 직접고용자의 감소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 지역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방은 6.5%의 고용자 감소를 보인 반면 수도권 지역(일 드 프랑스)은 단지 2%의 고용자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국가 전체 고용자 감소의 85%가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즉 수도권 지역은 기능별, 분야별 전문화에 의해 오히려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군사력과 군비지출의 감소에 따른 유럽공동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유럽 연합의 연구에 따르면(Commission européenne, 1994) 공동체내 71개 지역(NUTS 1) 중 24개 지역이 군수

산업 및 군대에 대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강한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즉 영국의 6개 지역(런던(에이번(Avon), 데번(Devon), 콘월(Conwall), 윌트셔(Wiltshire) 등), 햄프셔(Hampshire), 컴브리아(Cumbria)과 프랑스의 9개 지역(부르타뉴(Bretagne), 아키텐(Aquitaine),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 중부(Centre), 리무쟁(Limousin), 미디 피레네(Midi Pyrenees), 북 노르망디(Haut Normandie), 남 노르망디(Bass Norman die),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이 군 병력과 군방비 지출 감축에 의해 지역 경제와 지역산업의 구조적

표 5. 군수산업 및 군대에 높은 의존도를 지닌 주요지역(NUTS 2) 단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

	군수산업	군대	합계
Voreio Aigaio(그)	0.0	29.9	29.9
Ceuta Y Melilla(스)	0.0	22.9	22.9
Acores(포)	0.0	11.8	11.8
Noto Aigaio(그)	0.0	11.3	11.3
Kriti(그)	0.0	10.6	10.6
Friuli-Venezia Giulia(이)	1.7	9.0	10.6
Dytiki Makedonia(그)	0.1	10.4	10.5
Anatoliki Makedonia, Thraki(그)	0.1	10.1	10.1
Hampshire, Isle of Wight(영)	1.2	7.8	9.0
Trier(독)	0.1	8.7	8.8
Cumbria(영)	6.4	1.0	7.4
Cornwall, Devon(영)	1.6	5.3	6.8
North Yorkshire(영)	0.0	6.3	6.3
Madrid(스)	0.6	5.6	6.2
Koblenz(독)	0.1	6.0	6.1
Bretagne(프)	2.5	3.6	6.1
Lüneburg(독)	0.1	5.9	6.0
Bremen(독)	2.7	3.1	5.8
Provence-Alpes-Cote d’Azur(프)	2.1	3.8	5.8
Avon, Gloucester, Wiltshire(영)	1.3	4.3	5.5
Rheinhessen-Pfalz(독)	0.1	5.1	5.2
Schleswig-Holstein(독)	0.5	4.5	5.0
Aquitaine(프)	2.4	2.6	4.9
EU평균	0.6	1.9	2.4

주 : (그)그리스, (독)독일, (스)스페인, (영)영국, (이)이탈리아, (포)포르투갈, (프)프랑스  
 자료 : Commission européenne, 1994.

취약성을 보였다. 그밖에 벨기에의 2개 지역(리에주(Liege), 에노(Hainaut)), 독일의 2개 지역(브레멘(Bremen), 뮌헨(München)), 이탈리아 2개 지역(프리오리 베네치아 줄리아(Friuli-Venezia Giulia), 리구리아(Liguria)), 스페인 1개 지역(무르시아(Murcia))과 포르투갈의 리스본(Lisbon)이 군수장비산업에 대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높은 의존성을 보였다.

## (2) 동부 유럽의 지역적 영향

군수산업의 위기에 의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은 동부 유럽의 지역들이라 할 수 있다. 군비감축, 특히 군수장비구매 감축(30%~70%), 서구 자본주의로의 전환, 급격한 경제적·사회적 혼란 등은 동부유럽 군수산업의 대 변동을 의미한다. 특히 군수산업이 이들 국가의 산업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가장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발트 3국의 군수산업력의 50%에서 75%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Caroué, 1995).

구 소련의 군수산업단지는 규모와 질(투자, 원료에 대한 접근성, 노동력의 질과 노동임금)적인 면에서 국가산업의 중심이었다. 이들 군수산업단지는 약 500개 주요 기업에 의해 137개 콤비나트로 구성되었고, 약 5백 50만~6백 50만 명이 종사하였다. 이것은 약 3천 8백만 구 소련 산업 노동자의 14.5%~17%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었다. 이러한 군수산업은 지역적으로 재편성되어 있었다. 즉 러시아 73%, 우크라이나 14%, 벨로루시 3.3%, 발트 3국 3.7% 그리고 카프카스 공화국 2.8%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정부의 군수장비 구매의 급격한 감소(1991년 30%, 1992년 50%)는 1990~1992년 사이 약 70만 명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Caroué L., 1995). 이러한 상황은 군수산업의 강한 지역적 집중을 보인 러시아의 메트로폴리탄 지역(모스크바(Moskva), 레닌그라드(Leningrad), 우랄(Ural) 등)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핵심지역(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옴스크(Omsk), 톰스크(Tomsk),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Komsomolsk-na-Amure))의 지역

경계를 어렵게 만들었고, 우크라이나(1백 30만 고용 감소)와 벨로루시(60만)와 같은 신생 독립국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 있어 연방의 해체는 20년 전 이래로 이룩해온 산업의 기술적 상호의존과 협력관계의 분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외한 어떤 신생 독립국가도 그들의 군수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의 산업적·기술적 기반을 견고하게 충족시킬 재정적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1)</sup>.

과거 바르샤바 조약(WTO) 국가들 역시 군수산업과 군수산업지역에서 심각한 고용상실과 지역적 위기를 받았다. 구 동독(10만), 폴란드(26만), 헝가리(1만), 체코와 슬로바키아(10만) 그리고 불가리아(14만 명) 등이 많은 군수산업 노동자의 손실을 보였다(Caroué, 1995). 다시 말해 1950년 이후 서구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동부진영의 군수생산시설 확대전략과 구 소련과의 기술적 상호의존과 협력관계를 통해 군수산업에 전문화된 동부유럽국가들의 군수산업지역들은 이들 국가들의 서구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과 구 소련의 해체에 따른 군수산업의 위기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4. 군수산업의 위기와 지역적 대응

### 1) 산업전환의 어려움과 군수산업기업의 대응

#### (1) 군수산업의 산업전환 및 재순용의 어려움

산업전환(reconversion)이란 군수상품 제조기업 및 제조시설이 민간상품 제조기업 및 제조시설로의 이행으로 정의될 수 있다(Zaks, 1992). 대규모의 군수산업의 산업전환은 분명한 정치적 의지와, 시기, 많은 재정 그리고 개개인의 재교육과 시설 개조 등 많은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수상품생산의 특성(품목의 단순, 상품의 높은 신뢰도 등)과 생산요소(노하우, 구상과 제조 방법 등)는 민간상품생산과는 아주 많은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군수생산에서 민간상품생산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1970~1980년대 군수상품의 성장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상품의 생산을 포기한 서구의 군수대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군수산업



의 위기와 더불어 군수산업분야에서 쌓은 기술적 능력으로 민간상품 생산으로의 확대를 추구하는 다변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상품생산체계에서 민간상품생산체계로의 산업전환 또는 재순용(reorientation)과정은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군수상품체계에서 민간상품생산체계로의 산업전환은 현실적 어려움과 긴 시간이 요구된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 의하면(Hébert, 1995) 군수상품생산과 관련된 5천 개 중소기업 중 단지 1/3의 기업만이 순수제품 개발 또는 산업분야(자동차, 기계, 자동화/로버트 등)의 산업전환을 통해 민간상품생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또한 한 중소기업이 산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18~36개월의 긴 시간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간상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산업전환과 재순용은 민간상품시장의 발달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 특히 군수 생산기업의 산업전환이 가능한 자동차, 기계, 로버트와 자동화, 의학, 전자와 정보 혹은 원격 통신과 같은 분야는 민간시장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기업이 높은 기술적·상업적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상품의 산업적 논리의 선택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주요국가들이 거의 한 세기동안 적용해온 경제와 산업의 발전모델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군수생산체계의 민간상품생산체계로의 전환은 1970~80년대 많은 노력으로 이룩한 생산수단과 생산력의 상당한 소모를 의미하며 산업적·기술적 실체의 상실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산업전환이 될 수도 있다.

## (2) 산업전환과 군수산업기업의 대응

산업전환 혹은 다변화의 능력은 각 국가가 군수산업에 채택한 다양한 모델과 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산업적·기술적 동향에 따라 국가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Zaks, 1992). 거대한 독점 위주로 운영되어온 영국의 군수산업은 군수산업의 침체에 의해 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군수산업의 위기에 대처하는 영국기업의 전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Lock, 1997). GEC는 국가적 보호정책과 군수산업의 전문화로 군수산업기업으

로 더욱 성장한 반면에 British Aerospace는 부동산, 공공 건설공사와 자동차(Rover 인수) 분야로의 다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실패는 군수산업에서 민간산업으로의 다변화 혹은 재순용 정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군수산업은 서부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산업전환에 근본적으로 유리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Caroué, 1994). 우선, 독일의 산업논리는 직접적인 채산성 논리에 의해 재정관리 면에서 매우 일관적이고, 그리고 독일의 군수산업 활동은 계열회사의 어려움을 보다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보완적이고 다양화되어 있고 강력한 그룹과 항상 통합되어있으며 마지막으로, 독일 군수산업의 위기는 1989년~1992년 통일시기에 이루어진 경제와 산업의 활발한 고무에 의해 완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수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독일의 노동자는 유럽공동체의 다른 국가의 고용자보다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프랑스 기업들의 전략은 내적 다변화, 외적 성장, 민간부문으로 전환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Hébert, 1995). Sagem의 경우 민간 전자분야와 민간 원격통신분야로의 산업전환에 의해 군수장비의 비중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SNPE, Aerospatiale, Dassault, DCN 등)은 군수생산과 가장 밀접한 기술 또는 분야에서 내적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 다변화 전략을 시도한 대다수 기업들의 활동은 소극적이고, 그룹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분열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GIAT(무기, 장갑차)는 외적 성장전략의 추구하는 경우로 이 기업은 기계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의 인수정책을 통해 민간 생산의 중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확대된 고용자의 감축과 공장 폐쇄의 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목표한 시장이 극도의 경쟁을 떠겨됨에 따라 인수된 중소기업 기술자의 재교육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민영화와 더불어 군수상품 산업 기술을 민간상품 생산기술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군수전자부품 생산업체인 Thomson(정부지분 76%)은 민간상품 생산으로 가능한 약 400개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채산성, 상업적, 산업적 위험 등의 이유로 단지 20개의 계획만을 선택하였고, 이 중에서도 전자보안, 환경제어, 초고주파, 정보기구,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8개 계획만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군수산업의 민간산업으로의 산업전환과 재 순용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지역적 위기에 대한 대응정책

### (1) 유럽연합의 대응정책

군수산업의 침체에 따른 군수산업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대응방안은 기구에 따라 그 대응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위기를 맞이한 군수산업을 자동차, 조선, 섬유산업과는 별도로 우선 개입 산업분야의 하나로 간주하는 소극적 대응을 보인 반면에, 지역 또는 지방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산업의 위기에 따른 지역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1991년 유럽의회의 제안에 의해 '경쟁력 잃은 군수산업지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PERIFRA)'이 시행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군수산업에 강한 의존을 보이는 지역들의 경제활동 다변화와 산업전환, 그리고 산업전환 기업들의 상업적 적응을 지원하는데 두고 있다. 계획의 실천방안으로 첫째, 구 동독의 러시아기지와 북태평양 조약기구(NATO)의 군사기지(스페인의 토르존(Torrenjon) 등)의 전환 문제, 둘째, 군수산업지역의 개발활동 지원(영국의 머지사이드(Merseyside), 프랑스의 타르브(Tarbes) 등) 셋째,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의 공동개발(독일의 브레멘(Bremen), 영국의 랭커셔(Lancashire), 잔

스타드(Zaanstad)), 넷째, 유럽의 대규모 군사항구 지역의 전환문제(프랑스의 브레스트(Brest), 스페인의 카디스(Cadiz), 영국의 플리머스(Plymouth)와 타렌트(Tarente))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군사항구 전환을 위해서 군수시설 자원의 전환, 군·민간의 비 물질 자원의 재편성, 중소기업을 동반하는 지역개발, 상업항구의 현대화 및 공항과의 연계개선, 항구간(inter-port) 관광, 항구도시 내의 만과 오수의 정화 및 보호 등 6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1991~1992년 9천만 에큐(Ecus)가 보조되었고, 그 중 58%(약 5천6백만 Ecus)는 군비감소와 관련되어 지역 경제·사회의 어려움에 직면한 군수산업지역에 지원되었으며 나머지는 구 동독과 그리스의 군사기지 전환을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PERIFRA 프로그램은 1993년 유럽의회의 제안에 의해 KONVER 프로그램<sup>12)</sup>으로 변경되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된 KONVER 프로그램 역시 군사기지 폐쇄 및 군수산업의 침체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에 대한 원조 계획으로 군수산업에 대한 강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모든 타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산업전환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다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계획의 실천을 위해 KONVER 프로그램에 의해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의 산업전환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활동들을 살펴보면 산업전환 기업들의 기술적, 경영적, 상업적 노하우 개선과 관련된 활동, 협력 중소기업의 대체 경제활동, 새로운 생산활동에 적합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재 교육활동, 지역환경 및 경관개선과 관련된 활동, 산업전

표 6. 유럽연합 구조기금 지원을 받은 군수산업 지역(NUTS 2)

	군수산업에 의존된 지역	군사기지에 의존된 지역
	지역의 수	지역의 수(%)
자격이 있는 지역	5	39
일부지역이 자격을 지닌 지역*	23	17
자격이 없는 지역	27	59
합계	55	115

주 : \* 군수산업 시설 및 군사 기지는 일부지역이 자격을 지닌 NUTS 3 지역에 위치한다.  
자료 : STOA, 1993.

환 전략과 관련된 연구활동, 경제적·사회적 하부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활동, 여성 고용을 증대시키는 산업활동 등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1990년 1월 이후 군수산업과 관련된 활동에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고용상실을 보인 지역으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유럽평균 또는 국가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군수산업지역들이다. 즉 유럽연합의 183개 지역(NUTS 2) 중 55개 지역이 군수산업에 밀접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 지역 중 27개 지역은 높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들을 위한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원조자격이 되지 못하였다(STOA/Parlement Européen, 1993).

(2) 서부유럽 각국 정부의 대응정책

군수산업의 침체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정책은 각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논리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정책을 시행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아주 드물게 독일은 산업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수단과 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프랑스의 경우(Caroué, 1994), 군사 배치의 축소 또는 군수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프랑스 국방부는 1991년 '재구조화 위원회(DAR)'을 설립하여 심각한 지

역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12개의 군수산업지역(엔(Aisnes), 아르덴(Ardenne), 샤랑트(Charente), 셰르(Cher), 코레즈(Correze), 드롬(Drome), 지롱드(Gironde), 루아르(Loire), 모젤(Moselle), 니에브르(Nievre), 오토 피레네(Haute Pyrenees), 오토 비엔(Haute Vienne))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군수산업의 침체에 따른 주문 감소, 주문자의 가격에 대한 압력, 다수의 하청관계 취소 등으로 인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sup>13)</sup>의 자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군수성 사무국(DGA)은 1992년 '방위산업의 구조적 동반(Astrid)' 계획을 수립하여 약 7억 프랑을 다양한 분야에서 군수산업과 관련된 5천 개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이와 아울러, 프랑스 군수성 사무국(DGA)은 군수 중소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군수산업과 관련된 국영 대기업 및 국책 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연구개발 결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 또는 제공토록 하였다.

(3)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정책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산업 및 지역 경제조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수산업의 침체와 지역경제의 위기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정책을 보인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력이 군수산업에 집중된 영국의 블랙번(Blackburn) 의회는 Royal Ordnance Factories의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문제를 최소화하

표 7. 지역적 위기에 대한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지역	대응방안
블랙번(영)	기계와 전자산업으로의 산업전환 연구지원
프레스틴(영)	첨단산업단지 건설과 신상품 개발센터 건립
잔스타드(네)	저렴한 산업단지건설과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정책
브레멘(독)	민간상품 기술개발 지원과 새로운 시장개척 지원
셰르(프)	하청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고객과 중소기업 연결, 시장개척지원
아키텐(프)	군수산업단지의 기능적 통합, 대기업(또는 국립연구소)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 장려, 신상품개발과 시장개척 지원
틀롱(프)	첨단산업단지 건설과 기업유치 지원
브레스트(프)	첨단산업단지 건설과 기업유치 지원

기 위해 지역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기계와 전자산업으로의 산업전환을 모색하였고, 프레스턴(Preston)은 British Aerospace의 고용자 감축에 의한 지역 경제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첨단 산업단지의 개발과 신상품 개발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였다. 네덜란드의 잔스타드(Zaanstad)시는 육상 군수장비 기업인 Eurometal의 침체에 의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노동조합의 협조로 매우 낮은 임대산업지역 건설과 재정적 지원정책에 의한 기존 기업 및 신설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2만 5천 명의 군수산업 고용자를 지닌 독일의 브레멘(Land Bremen)은 군수선박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구조기금, 연방정부의 산업전환 기금과 지역 발전 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새로운 민간상품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와 아울러 Land의 상원은 '군비축소와 산업전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원, 노동조합원, 대학교수 그리고 기업 경영자가 모인 협력기구를 설립하였다.

프랑스의 셰르(Cher) 주의 부르즈(Bourges)와 비에르종(Vierzon)은 군수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적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청기업에 대한 원조, 기계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적인 전람회 참여 보조, 지역 고객과 중소기업간의 연결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키텐(Aquitaine) 주는 지역위원회가 지방위원·지역위원·지역발전 위원회·지역 상공회의소·국립 과학연구소(CNRS)·대학연구소 등 주요기관이 동참한 '항공·우주·군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일련의 지역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역 군수산업단지의 분리된 기능의 통합, 산업 경쟁력의 증대를 위한 대 기업(또는 국립 연구소)과 중소기업간의 공동활동 활성화, 신상품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촉진,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지역(또는 정부)단체의 시장조사 실시와 다양한 마케팅 방법연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지역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결과 개방, 민간생산활동을 위한 군수산업 노동자의 재교육 실시, 마지막으로, 하청중소기업의 긴급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세무서비스·공공 은행들의 원조와

대기업들의 대출보증·이자율의 할인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노르망디(Normandie) 주의 셰르부르(Cherbourg)는 프랑스전력공사(EDF, 라 헤이그(La Hague)에 민간 핵 시설의 입지로 매우 밀접한 지역적 관계를 지닌)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전환 정책을 시행하였다. 프로방스(Provence) 주의 툴롱(Toulon)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하청기업의 지원, 기업창설 지원과 기술이전, 새로운 활동개발에 의한 지역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역·시·기업이 협력하여 첨단산업단지(Toulon Var Technologies)를 설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르타뉴(Bretagne) 주의 브레스트(Brest)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군수기업(Arsenal, La Marine de Guerre와 Thomson-radars)의 지원으로 설립한 브레스트-이르와즈(Brest-Iroise) 첨단 산업단지를 집중 개발하여 첨단산업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 5. 요약 및 결론

탈냉전과 긴장완화 추세, 유럽연합형성과 유럽독자방위체제 창설논의 등 군사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의 군사안보 지도를 크게 바꾸게 하였고 유럽지역 국가들의 군비지출의 감축, 군수장비 수출의 급격한 감소, 군수산업 고용자 해고의 증가, 군 병력의 감소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1970~1980년대 냉전시대에 구축된 군수산업과 군수산업지역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각 국가의 군수산업의 산업전환과 재순용의 성공여부와 군수산업지역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무대에서 유럽국가들의 위치를 결정하고 발생될 지역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군비지출의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서부유럽 군수산업기업들은 내적 다변화(GEC(영)), 외적 성장(British Aerospace(영), GIAT(프)), 민간부문으로 전환(Segam(프), Thomson(프)) 등 매우 다양한 생존전략을 추구하였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군수산업분야에서 쌓은 기술적 능력으로 새로운 민간 상품생산으로의 산업전환을 통해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전환 혹은 다변화의 능력은 각 국가가 군수산업에서 채택한 다양한 모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군수상품생산의 특성과 생산요소는 민간상품생산과는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군수생산 기업은 산업전환과 재순용에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

군수산업의 위기는 전통적인 군수산업지역과 국가 안보상 중요성을 지닌 해안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서부유럽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독일(구 서독)동부지역, 유럽연합 병력 집중된 거대 메트로폴리탄 지역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 지역 중 특히 군수산업에 대해 경제적·사회적 강한 의존성을 보인 전통적인 군수산업지역과 해안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유럽연합, 각국 정부, 각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시행되었다. 유럽연합은 군사기지 및 군수산업의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계획(PERIFRA, KONVER(93년 이후))을 수립하여 타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산업전환 등을 통해 군수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강한 의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다변화를 시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어려움에 처한 군수산업과 군수산업지역에 대한 서부유럽 국가들의 정부차원의 개입정책은 각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논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시장논리에 따르는 정책을 시행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아주 드물게 독일은 군수산업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수단에 의한 산업 및 지역의 지원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군수산업에 높은 지역경제의 집중을 보인 12개 군수산업지역의 경제 재구조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주문감소 혹은 하청관계 취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수하청중소기업의 자본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군수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국영 대기업 및 국책 연구소의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결과를 개방 또는 제공토록 하였다.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전환의 적극적

모색과 신상품 개발지원(블랙번(영), 브레텐(독)), 산업단지 건설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프레스텐(영), 잔스타드(네), 툴롱(프)),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원조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세르(프), 아키텐(프)) 등 대응방안은 각 지역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註

- 1) 군사 강대국간의 군비축소협정의 근본적 목적은 서구 강대국들이 다른 국가들 혹은 지역들(동구와 남)에 대해 그들의 패권유지의 군사적 수단을 보존하는데 있다. 또한 군비축소협정의 이면에는 군사 강대국간 새로운 군사적 패권쟁취를 위한 새로운 군사력 경쟁이 내재되어있으며 이것은 군사활동의 전문화, 군사도구로서 핵의 우월성, 첨단화되는 무기체계, 군수산업의 '탈국가화(denationalization)' 등의 특징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군사력 경쟁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 2) 1989년 재래식 무기감축을 위한 NATO 16개국(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덴마크, 영국, 에스파냐,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터키)과 WTO 7개국(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정상회담.
- 3) 유럽연합의 공동안보와 공동 대외정책 실행의 필요성은 유럽연합의 기초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91, 12)에서 논의되었다. 암스테르담 조약(97, 10)은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보다 효율적인 공동의교안보정책이 가능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및 행정조직을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쾰른에서 열린 유럽연합 15개국 정상회의(99, 6)에서는 순수 유럽의 방위기구인 서유럽연합(WEU)을 2000년 말까지 유럽연합의 방위기구로 흡수·통합키로 하는 등 유럽연합 자체 군사력보유 기반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 4) 1980~1987년 기간동안 전세계의 군비지출은 62%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전세계 군비지출의 80% 이상을 주요 선진국(북)이 차지하였다.
- 5) 서부유럽 주요국가들은 군대 규모를 크게 축소하였다. 1991~1993년 사이 영국(20%), 네덜란드(16%), 1992~1997년 사이 벨기에(50%), 1990~1997년 사이 프랑스(20%), 독일(38%) 감축하였다. 군대규모의 감축은 탈냉전 이후 인접 국경지대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있어 냉전 시 소요에 따라 구축된 대규모 군사력의 유지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어지고 반면에 향후 직면해야 할 위기의 성격상 대단히 짧은 시간에 시간적·공간적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적으로 작으면서도 신속한 대응전략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동맹국 및 인접국들과의 공통된 안보이해의 폭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이를 위해 다양한 군사행동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고도의 적응력·경험·전문지식을 지닌 군인과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갈수록 정밀도를 더해 가는 무기체계의 운용과 보수·유지를 위해 전문화된 직업군인이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군사적 요구에 부응하여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은 군사의 전문화에 의한 지원병제와 직업군인화 방침을 결정했거나 모색하고 있다.

- 6) 군비지출의 감축은 봉급, 사회적 비용, 유지와 훈련 비용 등 기능유지를 위한 지출에 대부분이 배당되었으나, 반면에 장비구매 예산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군비지출에서 아직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1987~1993년 서구의 국방비 지출 감소의 75%는 기능유지를 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 7) 이 계획은 1990년부터 국방장관 직속의 연구단이 주축이 되어 군 구조 등 12개 주요 국방분야의 개혁지침을 마련하여 1994년 연구보고서 「Front Line First : The Defense Costs Study」로 발간한 것이다.
- 8) 독일은 통일(1989, 11)초기 서독군 49만 5천 명, 동독군 10만 명으로 통합 후 1994년 12월 이후 총 병력 37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력 감축 시 동독군은 직업교육 및 일시금 보상 후 강제전역, 서독군은 의무복무연한 축소(징집병), 명예전역 제도(간부) 시행 등의 방법으로 성공적인 감축을 단행하였다.
- 9) 프랑스는 1992~1997년까지 6,220억 프랑을 군수장비 구매예산으로 책정하였다. 이 금액 중 1,350억 프랑은 핵무기의 구매에 배당되었다.
- 10) NUTS는 유럽연합의 지역구분체제로 1996년 현재 71개의 NUTS 1, 183개의 NUTS 2, 1044개의 NUTS 3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 11) 주변국가에 저가로 제공하는 천연가스·전기·석유 등과 같은 에너지원과 철도·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이들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소비 시장으로서의 기능 등은 러시아와 주변 독립국가를 연결해 주는 동맥이자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 12) KONVER(1억 3천만 Ecus) 투자금은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기금(ERDF) 8억 5천만Ecus와 유럽사회기금(ESF) 4억 5천만Ecus가 투자되었다.
- 13) 군수산업의 침체에 의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받은 것은 중소하청기업들이다. 군수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연구(3백 중소기업)에 따르면(Caroué L., 1994),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이들 기업은 총 매출고의 40%와 고용인의 27%가 감소하였고, 공장 가동률은 50%에 머물렀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군수산업활동의 위축은 중소 하청기업의 주문 감소, 주문자의 가격에 대한 압력, 다수 하청관계의 취소 등을 가져오게 하였다.

## 文獻

- 엄태암 외, 2000, 유럽안보정세 변화와 전망, 한국 국방연구원.
- Adam B. et al., 1994, Memento défense-désarmement 1993 : L'Europe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 *Dossiers du GRIP*, n°168/171.
- Brigot A., 1997, *Les Territoires de l'Union*, CIRPES.
- Caroué L., 1992, Crise des industries militaires, nouvelle course aux armements, *le Monde Diplomatique*.
- Carroué L., 1994, *La crise des industries militaires occidentales : la question de la reconversion*, CRIA.
- Caroué L., 1997, *Les industries européennes d'armements*, Masson.
- Commission européenne, 1993, *Incience économique et sociale des réductions des dépenses et des forces militaires sur les régions de la Communaute*.
- Commission européenne, 1994, *Guide des initiatives communautaires*.
- Commission européenne, 1994, *Compétitivité et Cohésion : tendances dans les régions*.
- Commission européenne, 1995, *Guide des actions novatrices du développement régional 1995-1999 : Coopération interrégional et innovation économique : Aménagement du territoire : Domaine urbain*.
- Commission européenne, 1996, *Fonds structurels et Fonds de cohésion 1994-1999 : Textes réglementaires et commentaires*.
- Hébert J. P., 1995, Production d'armement. La mutation du système frança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Hébert J. P., 1997, Espace de l'industrie d'armement et territoire européen, *Cahier d'Etudes Stratégiques 19*, CIRPES.
- Schake K. et al., 1999, Building a European Defence Capability, *Survival*, 41(1), 20~40.
- Lock P., 1997, L'expansion politique de l'espace européen et l'industrie d'armement, *Cahier d'Etudes Stratégiques 19*, CIRPES.

STOA/Parlement Européen, 1993, L'industrie européenne de l'armement : recherch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et reconversion, *Rapport d'étude du GRIP*.

Zaks A., 1992, Diversification et reconversion de l'industrie d'armement, *Dossiers du GRIP*, n. 165.

(2002년 10월 1일 접수)